

이창석 각자장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난 5~7일, 주민·관광객 목판인출 등 체험...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거진읍 반암리 소재 고성군 향토 공예전시홍보관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이창석 각자장의 전승활동 공개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통인쇄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전통기법 전승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승활동에서는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나무에 글자를 새겨보고 인쇄를 해보는 각자체험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목판인출체험이 진행됐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이창석 각자장은 1973년 나무활자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4년 5월 21일 강원도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된 장인이다.



이창석 각자장이 목판 인출체험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기법인 나무 활자를 이용한 월인석보 권 22 및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집왕성교성 등 목판 전체를 복원했다.

지난 1990년 고향으로 돌아

와 강원서각을 열고 작품활동과 전승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이창석 각자장의 아들인 이운천씨(32세)가 대를 잇고 있다.

박승근 기자

‘빅마마와 시스터즈’ 전국대회 3위

‘올 투게더 탑 탈렌트’ 출연

고성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빅마마와 시스터즈’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장기 자랑 대회인 ‘올 투게더 탑 탈렌트(ALL Together TOP Talent)’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리랑 TV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연 모습은 지난 13일 오후 8시에 방영됐다.

‘빅마마와 시스터즈’는 지난 5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린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장기자랑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강원 대표로 선발됐으며, 지난달 31일 서울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인기상을 차지했다.

조세핀 등 9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빅마마와 시스터즈’는 바쁜 가사일 가운데도 틈틈이 저녁시간에 만나 공연을 준비해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들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행사나 이주민을 위한 행사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해 어르신을 위한 즐겁고 신나는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 투게더 탑 탈렌트’ 최광호 기자



청소년들이 접경지역의 삶 기록

‘DMZ이야기’ 고성 출범식... 5개 접경지역 학생 80명 참가

고성, 양구, 인제,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 5개 지방문화원이 2011 향토사 대중화사업 기획프로그램으로 ‘DMZ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고성에서 출범식이 열렸다.

접경지역 5개 문화원에서 선발된 80여명의 청소년들은 현내면 DMZ박물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2박3일간 5개지역을 순회하며 DMZ투어를 펼쳤다.

이번 투어는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일전망대

및 평화생명동산, 칠성전망대, 노동당사를 비롯해 월정리역 등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 양구 방산사기박물관에서 학생들이 직접 비둘기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오는 10월 지역순회 전시회 DMZ의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DMZ이야기’는 지난 5월 전체인대식 및 공동워크숍을 시작으로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과

사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분단의 상징으로만 기억되던 DMZ가 아닌 일상의 삶 그대로를 재해석하는 향토사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성지역은 고성군문화원(황연인)주관으로 박명재 사무국장 및 대진고등학교 학생 10여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송운석 전 고성군청 기획실장과 최승재 전 속초여고 교사가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19]

독립운동가 김 종 화(金鍾和)

1889년 ~ ?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외금강면(外金剛面) 온정동(溫井洞) 출신이다.

일찍이 러시아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연해주)로 이주하여 1918년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강국모(姜國模)와 함께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활동하였다.

선생은 1919년 음력 2월경

시베리아 오호츠크 금광 부근에서 거주 한국인으로부터 러시아 화폐(약 1만루블)와 일화 3천 8백 원 상당하는 사금을 모집하여 상해임시정부에 보고하고 독립 단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동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주흥익(株鴻益) 등과 함께 러시아 인으로부터 권총 3천정, 장총

40정, 탄환 등을 구입하여 1920년 음력 3월경 노령 연해주에서 독립운동단체인 ‘혈성단(血成團)’을 조직하고 단원 300여명을 모집하여 항일활동을 벌였다.

또 동년 음력 4월경에는 중국 간도에서 ‘광복단(光復團)’으로부터 무기구입자금이 오게 되자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인

체코군 장교로부터 권총 1천정을 구입하였으며, 또 음력 6월경에는 중국 간도의 독립군 ‘신민단(新民團)’에다 보낼 목적으로 동소에서 체코군 으로부터 1백정 탄환 십만 발을 구입하여 보냈다. 그 후 음력 8월경에는 무기를 구입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음력 9월경에는 김좌진의 ‘의군단(義軍團)’과 상호 협조하였다. 그리고 1921년 6월경에 러시아 지역의 연해주 크로관카에서 설립한 ‘노농군회(勞農軍會)’와 혈성단을 병합하여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설립

하여 활동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1922년 6월 19일 경성 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出典:

-고성군지(高城郡誌) 고성군, 1998, 보정판, p.p140~141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2권 (광복회 강원도지부, 1992) p.p336~337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